

“식영정·소쇄원·왕버들나무 ... 소중한 유산들 훼손” 우려

〈명승 제57호〉 〈명승 제40호〉 〈천연기념물 제539호〉

■ 문화재청·환경단체 ‘광주호 독 높이기’ 반대하는 이유는

만수위 1.1m 높아지면 가사문학관 자연 경관 확 변해

농어촌공,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절차 없이 졸속 추진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4월 착공, 추진중인 ‘광주호 독 높이기’ 사업은 착공 전부터 정치권을 비롯, 시민·환경·종교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문화재청의 방침도 이러한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충분한 검토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해온 데 따른 비판이 거세게 일 전 말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당시 ‘광주호 독 높이기 저지연대’를 결성, 천막농성까지 벌이면서 반대했던 배경은 독을 높이면 광주호 인근 가사문학관의 문화 유산과 생태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게 가장 컸다. 식영정·소쇄원 등 소중한 역사문화유산과 호수생태원 등이 수몰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사업 타당성이 낮은 독 높이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 ‘독 높이면 가사문학관 자연 환경 변화 불가피’ = 문화재청도 최근 농어촌공사의 ‘광주호 독 높이기 사업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한 배경에 독 높이기 사업으로 식영정 주변 자연 경관 훼손, 왕버들나무 침수·유실 우려 등을 들었다.

당시 시민단체 등의 같은 주장에 대해 ‘가사문학관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고 일축했던 농어촌공사 측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문화재청은 전문가들의 현장 조사를 거쳐 열린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광주호 독 높이기 사업에 따라 만

수위가 1.1m 가량 높아지게 되면 인근에 위치한 식영정(명승 제57호)과 왕버들나무(천연기념물 제539호)를 포함한 반경 500m에 지정된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독 높이기로 만수위가 1.1m 높아지면 식영정 앞 지방도도 침수를 막기 위해 성토해야 하는데, 그러면 식영정 경관이 바뀌는 것이고 가사문학관 자체 자연 환경도 변할 우려가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지금까지 문화재청 심의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이와 관련, “만일 농어촌공사가 독 높이기 사업을 강행할 경우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에 분명히 했다.

문화재청은 아울러 농어촌공사가 독 높이기 사업과 연계, 검토중인 충효교 확장(길이 30m→51.2m) 공사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환경당이 광주시 기념물인 만큼 광주시 문화재심의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만 충효교 확장이 환경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광주시는 환경당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명승 지정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문화재청 요구와 농어촌공사 측 입장 차이가 커서 농어촌공사가 오는 9월 문화재청 의견을 반영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고려하면 더 이상 사업 추진이 힘든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도 많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반영, 식영정 앞 도로를 1.05m 올리는 방안 등을 마련해 9월 중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졸속 추진 부작용’ =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빚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많다.

현행 법상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농어촌공사측 관계자는 “그린벨트 허가를 우선 진행하다가 문화재 현상 변경을 늦게 신청한 것”이라며 “조만간 허가를 얻어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이미 지난해 4월 독 높이기 사업에 들어가 현재 공정률이 1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공사 측은 “그 부문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독 높이기 사업시 수위 변화



〈식영정〉

■ 광주호 독 높이기 사업 개요

구분	현 재원	인공후 재원	
유역면적	4,130	4,130	
총저수량(만/㎥)	1,736	2,325(589 ↑)	
유효저수량(만/㎥)	1,520	2,109	
제고	제고(m)	25.5	27.1(1.6 ↑)
	제고고(EL.m)	81.25	82.85(1.6m ↑)
홍수위	홍수위(EL.m)	78.75	79.85(1.1m ↑)
	수해면적(ha)	2,338	2,338
환경용수(만/년)	-	529.6	



〈환벽당〉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호남과의 각별한 인연엔...

대학동기 동생 화자씨에 반해

사시 합격 뒤 결혼하려

첫 부임지 광주지검 선택

장인된 박찬일 변호사 집서 하숙

유인학의원 소개 DJ 만나기도



6일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박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 5자회담을 제인했다고 발표하고 있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신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부인이 광주 출신(광주일보6일자3면)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니 후 정치권에 이 부부의 러브스토리라 김 실장의 호남과 각별한 인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960년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거쳐 1964년 광주지검에 부임했다. 이때 박찬일 변호사의 집에서 하숙을 했는데 그 박 변호사의 막내 딸이 부인인 박화자씨다.

김 실장이 부인 박씨를 처음 만난 것은 서울대 법대에 다닐 때다. 김 실장의 법대 동기인 광주 출신 박인식 씨 광주 집에 놀러 가서였다.

“그 사람(부인)이 이화여대 가정과를 다녔는데 법대 동기동창인 처남이 집에 놀러가자고 조르기에 가보았더니 마음에 꼭 들어요. 이거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대시했지요. 그 사람도 그다지 싫지는 않았는지 잘 따라오네요. 광주도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김 실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친구 박인식씨는 부인의 친오빠였으며 광주를 선택했다는 것은 광주를 첫 부임지로 선택한 것을 가리킨다. 즉, 김 실장은 박 여사와 결혼하기 위해 광주를 택한 것이다.

김 실장의 장인인 박 변호사에게는 4남1녀가 있었는데 부인 박씨는 전남 여중·고, 이화여대를 졸업했다.

김 실장은 또 검찰총장(1988년12월~1990년12월) 중 당시 유인학 국회의원이 안내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만나지 않으려 했으나 김 실장이 박찬일 변호사의 사위라고 소개하자 만난 것으로 전해

진다. 새누리당 유수석 최고위원은 “김 실장은 호남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고 있는 분기에 인사당평 및 대통합에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우리도 場外로 나가야 할판 ...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대표전화: (062) 234-3222

FAX: (062) 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1번지

무안 - 심양전세기 [7/26~9/30 매주 월,수,금]

심양 / 백두산서퍼 5일[월]

일급 1,090,000 특급 1,190,000

심양/백두산서퍼/북퍼 6일[수/금]

일급 1,190,000 특급 1,290,000

무안공항에서 동방향공으로 떠나는 상해/구재구 6일

일급 1,299,000

여름휴가, 방학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급 별장으로 GO, GO!!

강추 히타 고급 별장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299,000~

출발일 8/9, 15, 18, 23, 28

※출발 가능한 인원: 최소 6명, 최대 23명

※불포함 사항: 선내식사 3식, 국내수송, 유류할증료

추석연휴 9/20~23일 히타 고급 별장으로 떠나는 규슈 3박 4일 399,000~

일본 규슈 온천 여행

규슈, 기타규슈, 히타, 아소 + 야마가타 별장 온천즐기기 4일 399,000~

규슈, 기타규슈, 히타, 아소 + 전통료칸 야마가타 온천즐기기 4일 539,000~

나가사키, 유럽풍의 하우스템보스 4일 629,000~

규슈, 유후인, 벳부, 히타, 아소 + 전통료칸 야마가타 온천즐기기 3일 749,000~

오사카&와카야마

항공으로 떠나는 일본 제일의 상업도시 오사카&아름다운 태평양과 환상적인 온천이 어울어진 와카야마!!

ALL포함 오사카, 교토, 와카야마 동굴온천 4일 1,100,000~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필리핀여행

7월 25일부터 무안(→)마닐라 직항 추항(매주목, 일요일 출발)

마닐라, 따가이따이, 팍상한폭포 3박 4일

특급 729,000~ 특급 759,000~

특가 마닐라/보라카이 4박 5일

특급 749,000~ 특급 799,000~

마닐라/보홀 4박 5일

특급 1,149,000~ 특급 1,239,000~

무안-세부 [8/7,10,14,17 단 4회!!]

세부 4일 749,000~

세부 5일 799,000~

여름방학 기획특가

무안-북경/만리장성 4일 399,000~

무안-북경/만리장성 5일 469,000~

무안-북경/태항산 4일 799,000~

무안-북경/태항산 5일 849,000~

국내여행/섬여행

항공 광주-제주도 269,000~

선박 목포-제주도 2박3일 159,000~

무안-상해

무안-상해/항주/소주 4일 729,000~

무안-상해/장가계 원가계 4일 999,000~

무안-상해/장가계 원가계 주가각 5일 1,049,00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도 표시, 광고사용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 공동: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보증금(여행사: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회보증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보증금 가입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상: 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 소 출발인원 상황에 따라 다름